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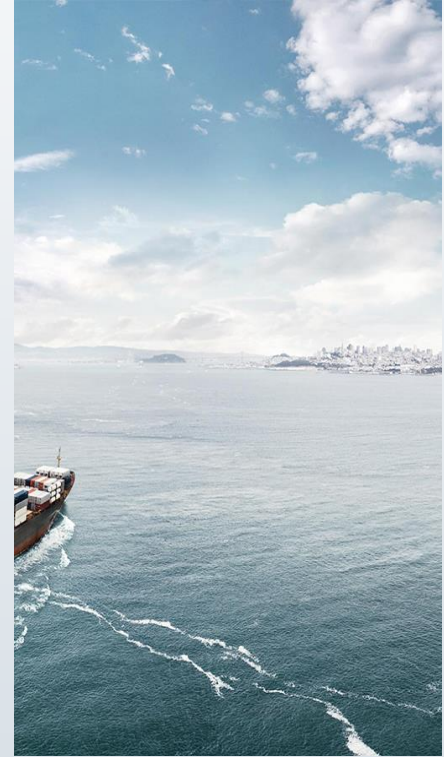


# STL MARKET REPORT

## Weekly Focus No.206

**Updated July 03, 2018**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8
- BC Sales Report	
Tankers	12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6
Key Indicators	19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I . ISSUE & TREND

### 1. "전자상거래, 컨테이너 수요 증가 기여"...해운업계 스마트화 박차

전자상거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해상운송 물동량 증가를 이끌고 있다. 선사들은 선박에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도입, 생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운송절차 간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 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대외 전자상거래는 약 75 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올해는 17.3% 증가한 88 조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전자상거래는 고가, 대형화물이 아닌 저가의 소형화물로 대부분 5~15 만 원 사이의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중국 기준 약 5,800 만명이 대외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온라인 비즈니스모델은 국경과 상관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 가능하게 한다. 또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판매자의 신용을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송의 편리함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가격이 1 달러인 제품도 배송비가 무료다. 알리바바그룹은 1,000 억 위안을 투자, 현재 두바이, 항저우 등 6 곳에 대한 글로벌 물류센터를 개발하고 인터넷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해상운송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윤희성 KMI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장은 "판매자 입장에서 배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별 수요를 예측하고 거점 별 물류센터에 대량으로 화물을 배송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라며 "해상운송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해운업계에는 스마트화 바람이 불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 해운기술이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세계 1 위 선사 머스크와 IBM 은 올 3 분기 안으로 미국 뉴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국제무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합작법인회사(조인트벤처, JV)를 설립한다. 두 회사는 합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해운 생태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무역 디지털 플랫폼을 공동개발해 단순화된 운송 절차와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 I . ISSUE & TREND

현대상선과 SM 상선은 지난해 5월부터 삼성 SDS 를 비롯해 정부, 국책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운 물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대상선은 중국본부를 통해 알리바바와 MOU 를 체결, 온라인 선복 구매 및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머스크라인과 CMA-CGM 도 알리바바와 협업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포워딩업체들로부터 선복을 확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사들이 쉬핑 플랫폼을 바꾸지 않는다면 화주 확보는 물론 선복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 5 월 해운시장 체감경기 악화...물동량 부족 여전

우리나라 선사들은 해운업 경기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내 선사 97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5 월 해운업 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7 포인트(p) 하락한 70 이다. BSI 는 100 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 응답기업이, 그 이하면 부정 응답기업이 많은 것이다.

컨테이너 부문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월 대비 83p 상승하면서 전월에 이어 82 를 유지했다. 선사들의 응답은 좋음 0%, 보통 82%, 나쁨 18%를 보였다. 건화물 부문은 벌크선 운임지수(BDI)가 전월 대비 269p 상승했지만 최근 유가상승으로 73(좋음 4%, 보통 64%, 나쁨 31%)으로 전월 대비 11p 떨어졌다. 유조선 부문은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운임이 조사 이후 최저 수준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체감경기지수는 전월 대비 4p 하락한 54(좋음 0%, 보통 54%, 나쁨 46%)를 기록했다.

경영부문에서는 채산성 82(전월비+1), 자금사정 78(-3), 매출 80(-2)을 기록, 전항목에서 부진을 보였다. 선사들은 물동량 부족(25%), 불확실한 경제상황(24%)를 주요한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운임인하가 각각 15%를 차지했다.

6 월 해운업 BSI 는 81 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응답기업 97 개사 중 5%인 5 개사만이 6 월 업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종별(컨테이너, 건화물, 유조선)로는 각각 100, 84, 62 를 보였다. 컨테이너 부문 채산성, 자금사정, 매출은 각각 112, 106, 124 를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I . ISSUE & TREND

### 3. 해외언론 "중국 LNG 선, 한국 보다 수준 미달"

중국 국영조선그룹 CSSC(CHINA STATE SHIPBUILDING CORP) 계열조선소인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선 'CESI 글래드스톤(CESI GLADSTONE)'호가 조만간 호주 LNG 프로젝트에 투입돼 LNG 선적에 나선다. 하지만 선령 2년을 막 넘은 이 선박은 운항불능 상태로 자국 선박관리회사에서 수리가 진행 중이다. 이 선박은 엔진이 일시에 '셧다운(가동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은 한국 대비 해외 선사들의 신뢰를 잃은 중국 토종 선박이 제대로 운항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루오 샤오빈 중국 선박관리회사 총괄책임은 "CESI 글래드스톤호는 선박 엔진추진 문제로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초 다시 운항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선박은 중국 국영석유기업인 시노펙(SINOPEC)이 호주 LNG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쉬핑(COSCO SHIPPING)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형식으로 중국 후동중화조선에 발주한 6 척의 시리즈선 중 첫 호선이다. 현지 업계에서는 2016년 12월 건조된 이 선박이 선령 2년도 채 안된 선박이라는 점에 의아해하고 있다.

LNG 선은 탑재된 LNG 화물창(LNG를 싣는 탱크) 결함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상 2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하다. 하지만 CESI 글래드스톤호의 경우 선령 10년 미만의 비교적 '젊은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운항불능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외 조선해운 전문매체인 스플래시 247은 '선박품질 문제로 논란이 된 중국의 가스선' 제하 기사를 통해 중국이 글로벌 선사들에 대한 선박품질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08년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자국 조선업계 최초로 건조한 '다펑 썬(DAPENG SUN)'호는 심각한 인도지연사태를 겪은 이후 발주처에 인도된 지 2년만에 싱가포르에서 오랜 수리를 거쳐서야 LNG 운반에 투입될 수 있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CESI 글래드스톤호가 코스코쉬핑에 인도된지 2년여 만에 선박 수리 중에 있는 것은 글로벌 LNG 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조선업계의 씩씩한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10년 전 첫 LNG 선을 인도하고 기술적 진보를 거듭해왔다"면서도 한국과 중국 조선업계를 비교하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비해 선박품질은 물론 인도지연 등으로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I . ISSUE & TREND

### 4. 엇갈리는 경제성장률 전망... '환율·금리·유가' 3 高 발목 잡히나

'환율·금리·유가'가 오르는 3 고(高) 현상이 하반기 국내 경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용 악화, 투자 부진,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시장이 위태로운 데다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기 민감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부 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제외하고는 국내 연구기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모두 3%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한국은행, OECD 정도만 올해 3% 성장률 달성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 및 연구소들은 2.6~2.9%를 기록할 것으로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포함한 36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다.

정부·국제기구·연구소 등 기관별 시각 차가 큰 것은 '소비' '수출'에 대한 전망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국제기구의 경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 수출·소비가 경제를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등은 제조업 부진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수출·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곽동철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관별 전망의 양극화·편중화가 심화돼있다"며 "향후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생산·소비·투자·수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며 성장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건은 변동성이 큰 '환율·유가·금리' 추이다.

올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점차 가팔라지며 배럴당 70 달러를 웃돌고 있다. 두바이유의 경우 최근 73 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지난해 말 대비 18% 가량 급등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요구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배럴당 90 달러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달에만 40 원 가량 오르며 1,120 원을 돌파했다.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제유가, 원화 가치 상승세는 국내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통상 물가가 오르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줄며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원가 부담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도 악화될 여지가 있다.



## I . ISSUE & TREND

---

아울러 금리 상승세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500 조원에 육박한 가계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 여력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하반기 중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 탓에 올해 말 들어서는 한미 금리 차가 1.00%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자본 유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역전 격차가 확대되더라도 당분간은 동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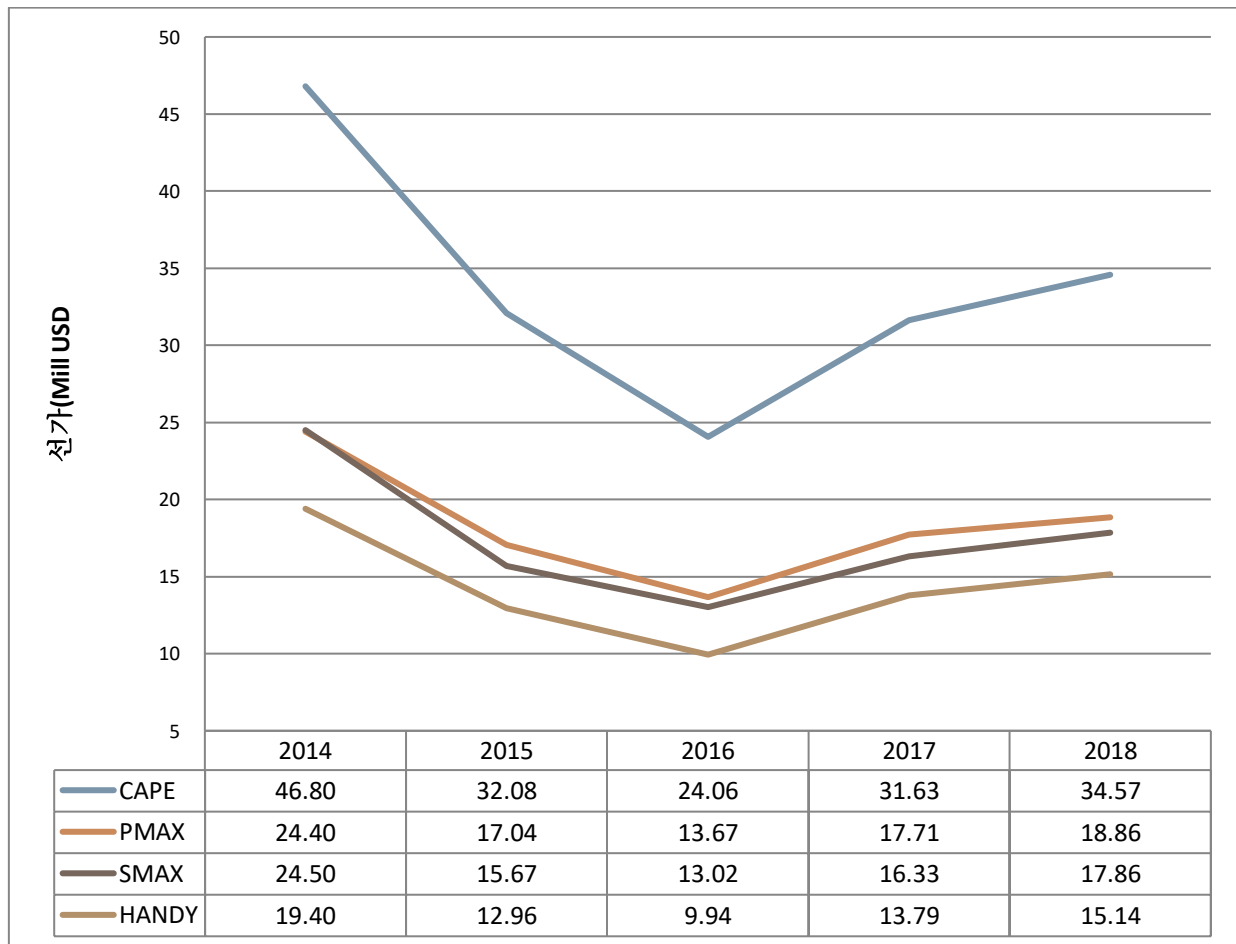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4	2015	2016	2017	2018
Capesize 180K	46.80	32.08	24.06	31.63	34.57
	28.81%	-31.45%	-24.99%	31.43%	9.32%
Panamax 76K	24.40	17.04	13.67	17.71	18.86
	13.27%	-30.16%	-19.80%	29.57%	6.49%
Supramax 56K	24.50	15.67	13.02	16.33	17.86
	14.84%	-36.04%	-16.91%	25.44%	9.33%
Handysize 32K	19.40	12.96	9.94	13.79	15.14
	9.04%	-33.20%	-23.32%	38.78%	9.80%

###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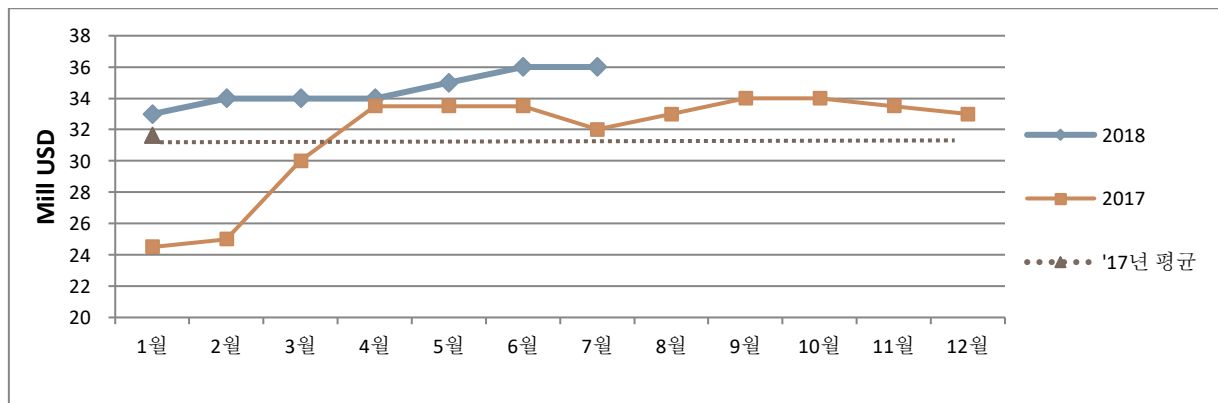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18	CAPE 180k	선가	33.00	34.00	34.00	34.00	35.00	36.00	36.00			34.57
		전월대비	0.0%	3.0%	0.0%	0.0%	2.9%	2.9%	0.0%			-
		전년대비	34.7%	36.0%	13.3%	1.5%	4.5%	7.5%	12.5%			9.3%
	P MAX 76k	선가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8.86
		전월대비	0.0%	0.0%	2.7%	0.0%	0.0%	0.0%	0.0%			-
		전년대비	27.6%	19.4%	8.6%	2.7%	2.7%	5.6%	5.6%			6.5%
	S MAX 56k	선가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7.86
		전월대비	0.0%	0.0%	2.9%	0.0%	0.0%	0.0%	0.0%			-
		전년대비	20.7%	16.7%	12.5%	5.9%	5.9%	9.1%	12.5%			9.3%
	H NDY 32k	선가	14.00	14.00	15.00	15.50	15.50	16.00	16.00			15.14
		전월대비	0.0%	0.0%	7.1%	3.3%	0.0%	3.2%	0.0%			-
		전년대비	7.7%	3.7%	11.1%	10.7%	10.7%	14.3%	14.3%			9.8%
2017	CAPE	24.50	25.00	30.00	33.50	33.50	33.50	32.00	33.00	34.00	31.63	
	P MAX	14.50	15.50	17.50	18.50	18.50	18.00	18.00	18.50	18.50	17.71	
	S MAX	14.50	15.00	16.00	17.00	17.00	16.50	16.00	16.25	16.25	16.33	
	H ANDY	13.00	13.50	13.5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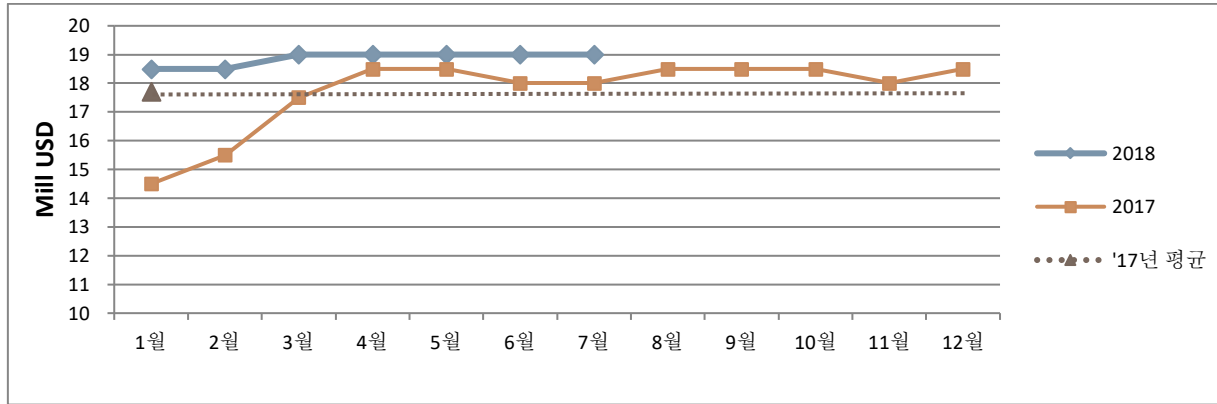
###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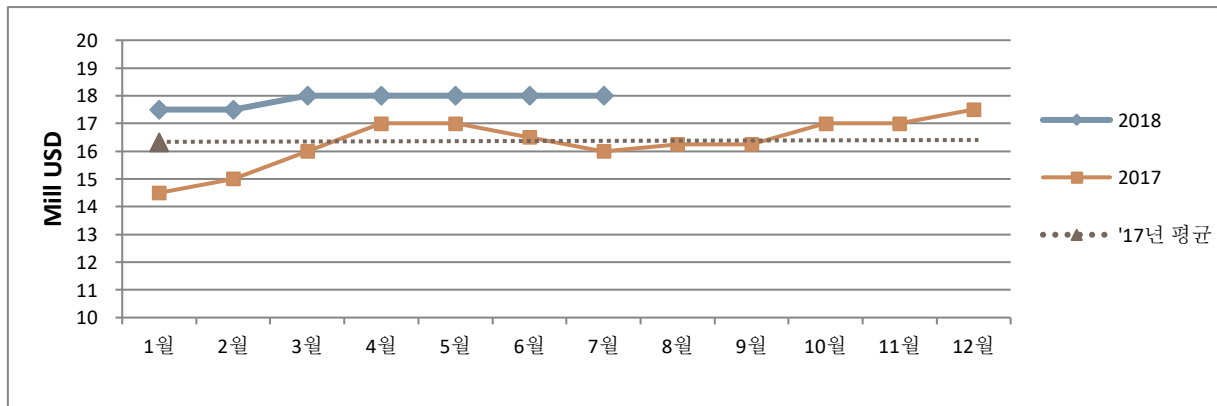


##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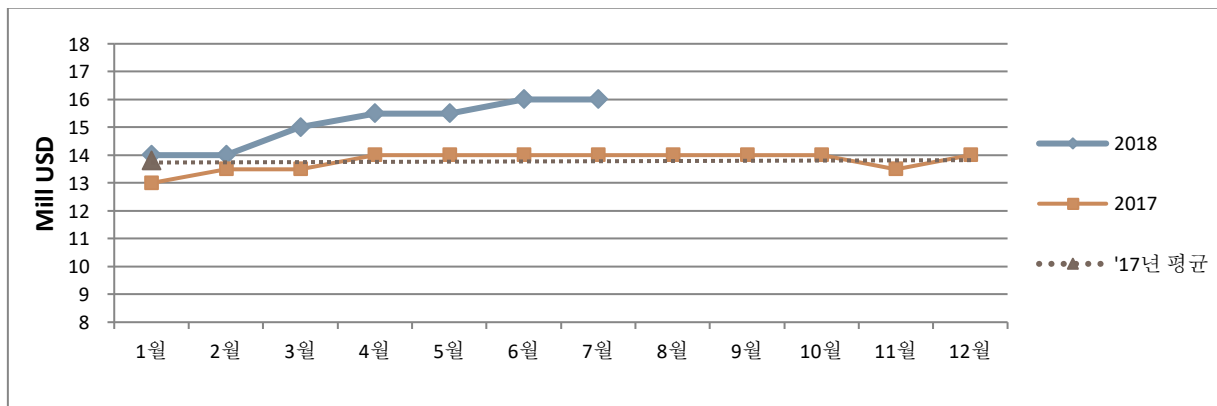
### □ Panamax



### □ Supramax



### □ Handy



## II . BULK CARRIER

###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BERGE ROSA	180,230	2006	JAPAN	B&W		-	Undisclosed buyer
BC	BERGE CRISTOBAL	177,253	2003	JAPAN	B&W		-	Undisclosed buyer
BC	OCEAN AMBITION	82,000	2014	CHINA	B&W		23.4	Greek buyer (Transmed)
BC	MENDOCINO	76,623	2002	JAPAN	B&W		9.6	Chinese buyer
BC	BARGARA	74,832	2001	CHINA	B&W		9.2	Chinese buyer
BC	DARWIN	73,800	2002	JAPAN	B&W		9.45	Chinese buyer
BC	AS VALENTIA	56,823	2009	CHINA	B&W	C 4x30t		
BC	AS VALDIVIA	56,799	2011	CHINA	B&W	C 4x30t		
BC	AS VINCENTIA	56,799	2010	CHINA	B&W	C 4x30t	55	Chinese buyer (BoComm Leasing)
BC	AS VICTORIA	56,799	2009	CHINA	B&W	C 4x30t		
BC	AS VIRGINIA	56,799	2009	CHINA	B&W	C 4x30t		
BC	GREEN CAPE	35,079	2003	CHINA	SULZ	C 4x40t	5.8	Undisclosed buyer
BC	GLOBAL STANDARD	28,349	2010	JAPAN	B&W	C 4x30.5t	10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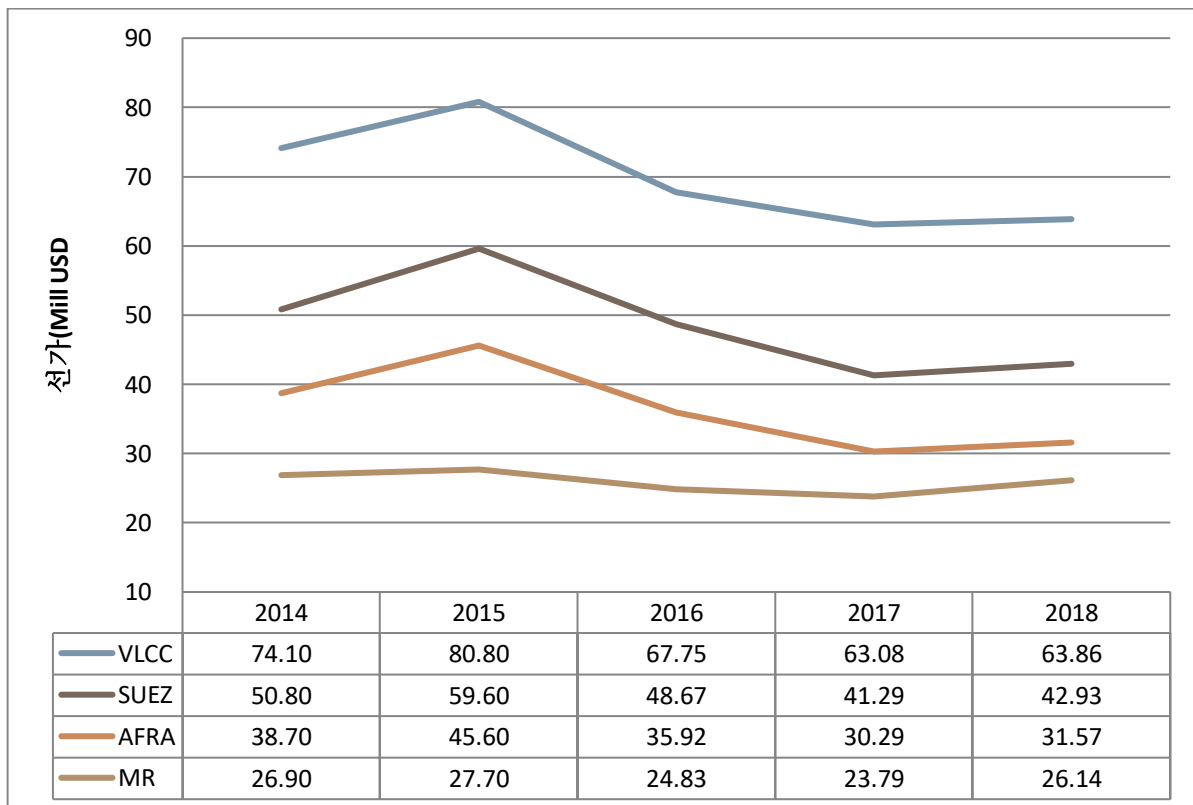
##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VLCC 310K	74.10	80.80	67.75	63.08	63.86
	31.93%	9.04%	-16.15%	-6.89%	1.23%
Suezmax 160K	50.80	59.60	48.67	41.29	42.93
	27.00%	17.32%	-18.34%	-15.15%	3.96%
Aframax 105K	38.70	45.60	35.92	30.29	31.57
	33.45%	17.83%	-21.24%	-15.66%	4.22%
MR 47K	26.90	27.70	24.83	23.79	26.14
	2.48%	2.97%	-10.35%	-4.19%	9.88%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00	12.60	13.92	12.42	12.14
	8.90%	-3.08%	10.45%	-10.78%	-2.21%

###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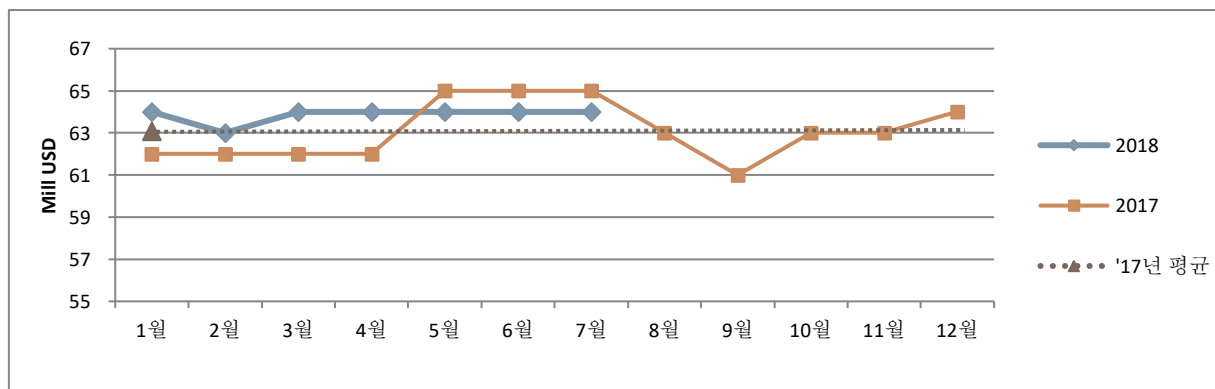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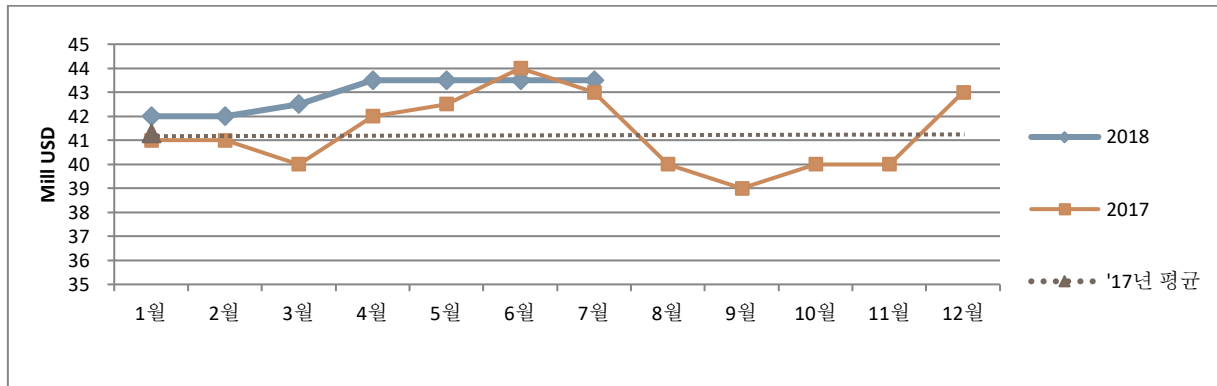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3.86
		전월대비	0.0%	-1.6%	1.6%	0.0%	0.0%	0.0%	0.0%			-
		전년대비	3.2%	1.6%	3.2%	3.2%	-1.5%	-1.5%	-1.5%			1.2%
	SUEZ 160K	선가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2.93
		전월대비	-2.3%	0.0%	1.2%	2.4%	0.0%	0.0%	0.0%			-
		전년대비	2.4%	2.4%	6.3%	3.6%	2.4%	-1.1%	1.2%			4.0%
	AFR A 105K	선가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1.57
		전월대비	0.0%	-6.3%	3.3%	3.2%	0.0%	0.0%	0.0%			-
		전년대비	6.7%	0.0%	8.8%	6.7%	3.2%	3.2%	3.2%			4.2%
	MR 47K	선가	25.00	25.00	26.00	26.50	26.75	26.75	26.75			26.14
		전월대비	0.0%	0.0%	4.0%	1.9%	0.0%	0.0%	0.0%			-
		전년대비	11.1%	11.1%	15.6%	10.4%	7.0%	7.0%	11.5%			9.9%
CHEM IMO 2 13K	선가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2.14	
	전월대비	0.0%	-3.8%	0.0%	-2.0%	-4.1%	-2.1%	0.0%			-	
	전년대비	6.1%	4.2%	-2.0%	-2.0%	-7.8%	-8.0%	-8.0%			-2.2%	
2017	VLCC	62.00	62.00	62.00	62.00	65.00	65.00	65.00	63.00	61.00	63.08	
	SUEZ	41.00	41.00	40.00	42.00	42.50	44.00	43.00	40.00	39.00	41.29	
	AFRA	30.00	30.00	28.50	30.00	31.00	31.00	31.00	30.00	30.00	30.29	
	MR	22.50	22.50	22.50	24.00	25.00	25.00	24.00	23.50	23.50	23.79	
	CHEM	12.25	12.00	12.75	12.50	12.75	12.50	12.50	12.75	12.00	12.42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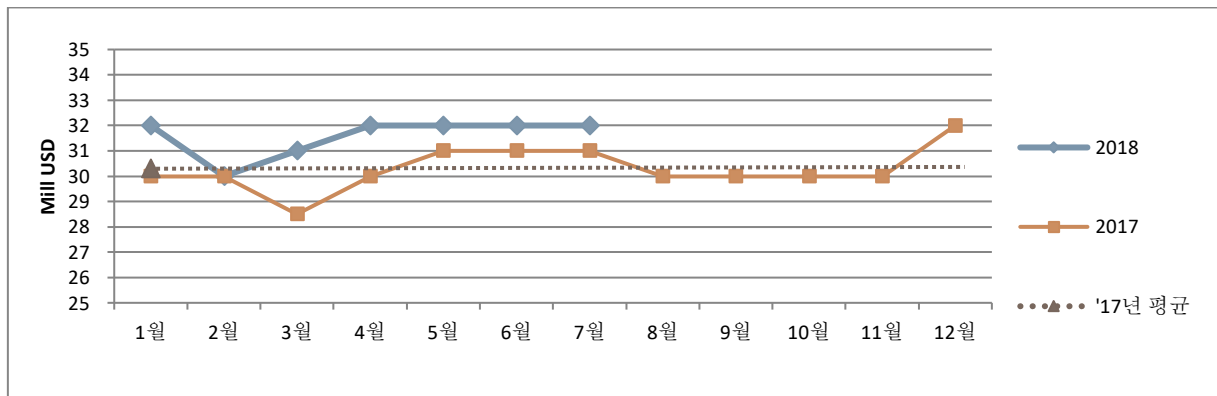


##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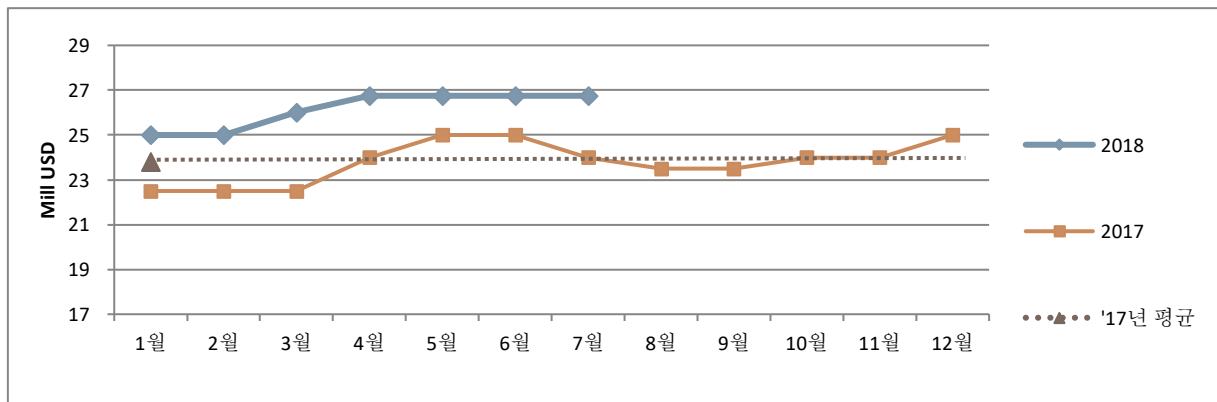
### □ SUEZMAX-160K



### □ AFRAMAX-105K



### □ MR-47K



### III. TANKER

#### IV-1. Tanker Sales Reported

#####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BM BONANZA	105,614	2007	JAPAN	SULZ		16.8	Greek buyer (Primebulk)
TANKER	AXEL	49,997	2010	JAPAN	B&W		16.5	Danish buyer (Torm)
TANKER	AEGEAN M	4,935	1978	GERMANY	MITSU U		1.2	undisclosed buyer
TANKER	FREDERICA	3,600	2008	CHINA	WAR T		-	Danish buyer (Monjasa)
OIL /CHEM	NICOS TOMASOS	37,163	2003	KOREA	B&W		8.6	undisclosed buyer
LPG	BRITISH COURAGE	54,533	2006	JAPAN	B&W		38.5	Greek buyer (Naftomar)

#####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SATURN	17076	2008	CHINA	B&W	1345	TEU	8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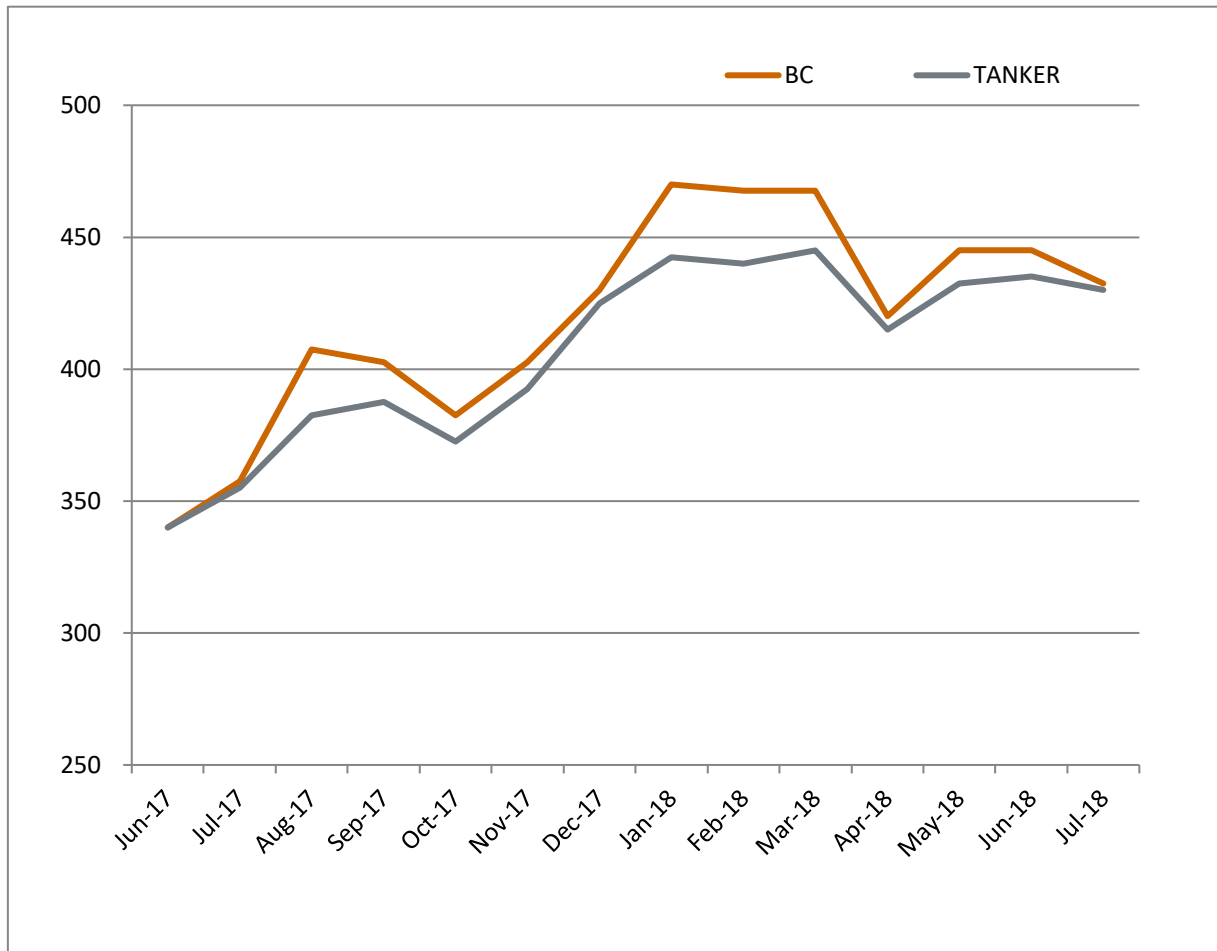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6 평균		2017 평균		2018 평균		2017 년 7 월	2018 년 7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65.63	-22.1%	365.21	37.5%	434.29	18.9%	355.00	430.00	-1.1%	21.1%
BC	267.71	-20.5%	370.83	38.5%	449.64	21.3%	357.50	432.50	-2.8%	21.0%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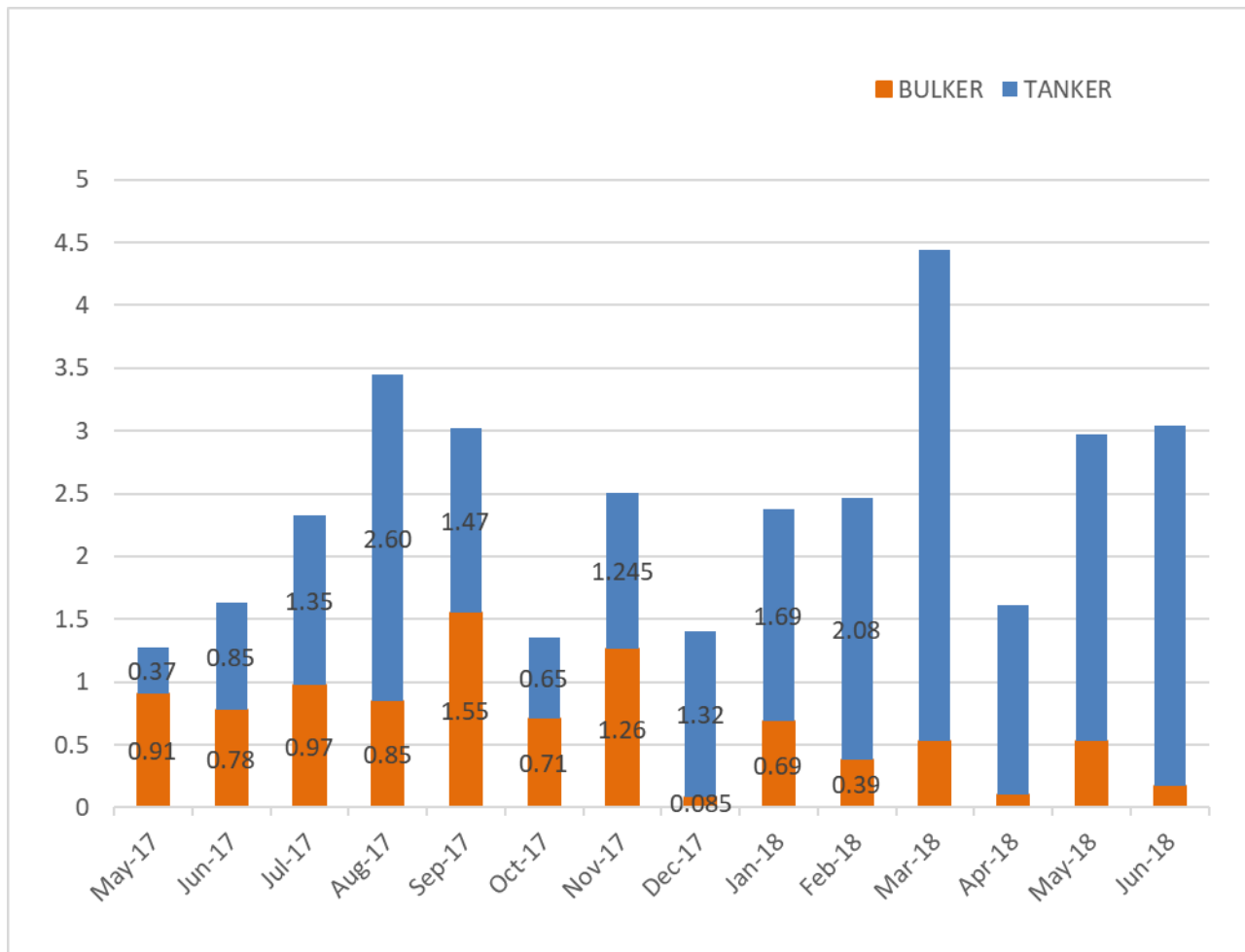


## IV. DEMOLITION

###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7 년		2018 년 누적			2017 년 6 월		2018 년 6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11.47	113	14.50	126.4%	118	104.4%	0.85	11	2.87	237.5%	16	45.5%
BC	11.74	292	2.40	20.5%	63	21.6%	0.78	25	0.17	-78.5%	11	-56.0%

###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 IV. DEMOLITION

###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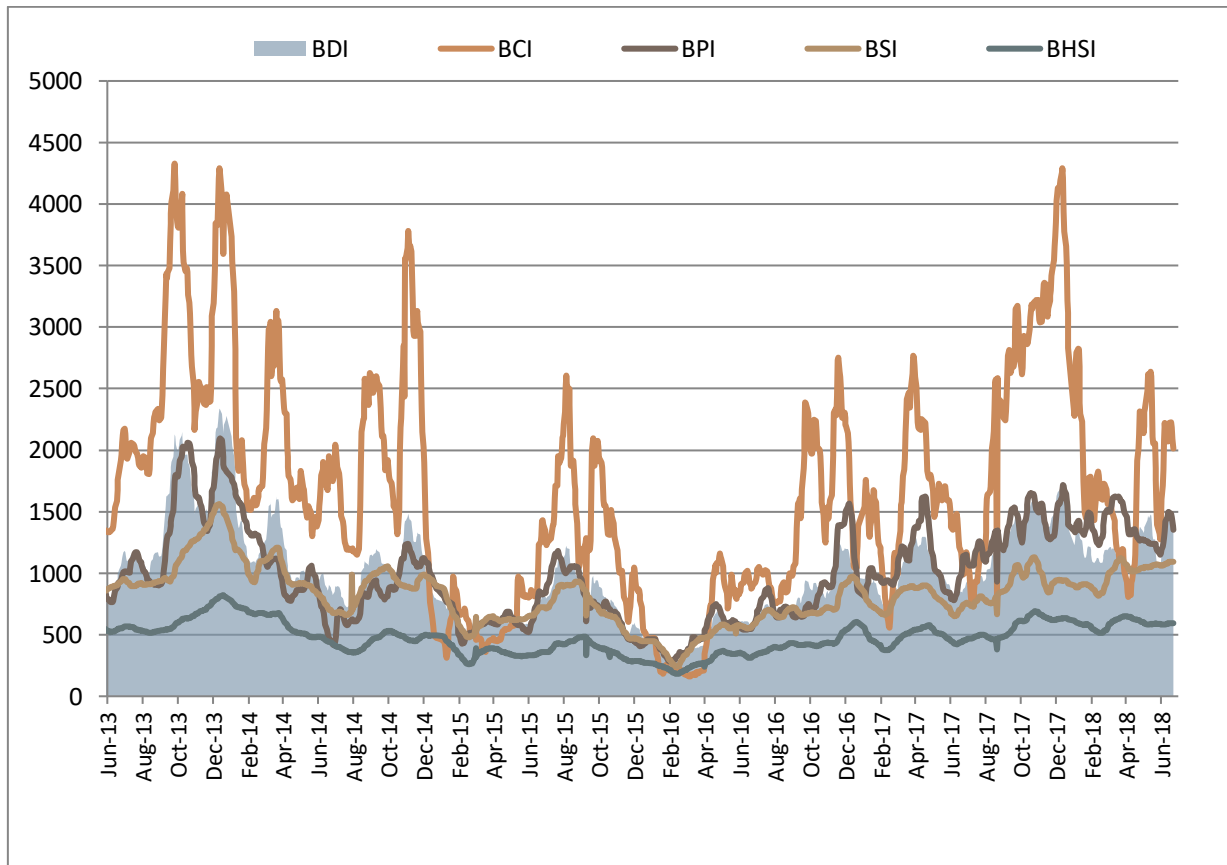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KIMISU MARU (Limestone Carrier)	17,000	4851	1991	JAPAN	B&W	335	AS IS Japan
RORO	MASHU	6,213	6742	1999	JAPAN		360	AS IS Japan
TANK ER	CAP ROMUALD	310,513	42444	1998	KOREA	SULZ	438	AS IS Singapore
TANK ER	AL SHEGAYA	310,513	42444	1998	KOREA	SULZ	400	AS IS Kuwait, extra payment for ROB
TANK ER	NORDIC HUNTER	151,475	22586	1997	KOREA	B&W	444.5	AS IS Khorfakkan, incl.FO 800ts + DO 200ts
TANK ER	NORDIC HARRIER	151,475	22529	1997	KOREA	B&W	444.5	
TANK ER	NORDIC HAWK	151,475	22512	1997	KOREA	B&W	444.5	
TANK ER	AL JAWZZAA	5,786	2841	1986	JAPAN	HANSH	305	AS IS Sharjah



## V . KEY INDICATORS

### 1) Baltic Index

	2018-06-29	2018-06-22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385	1341	▲44.00	2337	290
BCI	2170	2011	▲159.00	4329	161
BPI	1336	1355	▼-19.00	2096	282
BSI	1042	1092	▼-50.00	1562	243
BHSI	581	593	▼-12.00	821	183





## V . KEY INDICATORS

###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70.50	▲25.50	439.50	▲26.00	448.00	▲25.50
IFO180	501.00	▲22.00	474.50	▲32.00	509.50	▲36.50
MGO	668.50	▲17.50	627.50	▲9.50	677.50	▲9.00

❖ 기준일 : 6 월 29 일 기준

### 3) Exchange Rate

구분	2018-06-29	2018-06-22	CHANGE
미국달러	1121.70	1109.00	▲12.70
일본엔(100)	1014.79	1008.78	▲6.01
유로	1297.02	1287.27	▲9.75
중국위안	169.41	170.78	▼-1.37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 VI. CONTACT INFORMATION

---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TLX: K35476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